

잡아함 99. 정천경

날짜: 6월 17th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728>

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 계시었다. 때에 존자 정천은 비제하국에 있으면서 세간에 노닐다가 미치라성의 암라동산으로 왔다. 때에 존자 정천은 이른 아침에 가사를 입고 바리를 가지고 미치라성에 들어가 차례로 걸식하다가 자기 본 집에 이르렀다. 때에 정천의 어머니는 나이 많아 중단에 있으면서 음식을 가지고 불에 제사 지내어 범천에 나기를 구하다가 존자 정천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.

그 때에 비사문천왕은 존자 정천에게 대하여 지극히 공경하고 미더워하고 있었다. 때에 비사문천왕은 모든 약사를 데리고 허공을 타고 가다가 존자 정천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어머니가 음식을 들고 중당 위에서 불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 아들이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. 그는 공중에서 내려와 정천의 어머니 앞에 와서 계송으로 말하였다.

이 여자 바라문이여

범천은 여기서 지극히 멀다.

그런데 거기 가서 나기 위하여

여기서 불에 제사 지내는구려.

그러나 이것은 범천에의 길 아니거니
어찌 속절없이 이것에 제사하리.

너 여자 바라문이여
정천이 지금 문밖에 서 있나니

더러운 번뇌 길이 여의어
그는 곧 하늘 중의 하늘이니라.

일체를 버려 가진 것 없고
혼자 우뚝해 짹하지 않으며
밥 빌기 위해 집에 들어왔나니
그는 마땅히 공양할 만하니라.

정천은 그 몸을 잘 닦나니
인간과 천상의 좋은 복밭으로써
일체의 악을 멀리 여의어
더러운 욕심에 물들지 않도다.

그 몸은 인간에 머물러 있지만
그 덕은 범천에 못하지 않네.
일체의 법에 집착하지 않아서
원만히 이루어진 저 용과 같네.

바른 생각에 머물러 있는 비구
그 마음은 잘 해탈했나니
마땅히 부처님처럼 받들어야 하리
그는 곧 최상의 복밭이니라.

마땅히 깨끗한 믿는 마음으로써
때를 놓치랴 빨리 베풀어 주라.
그래서 미리 피난처 마련하여
미래의 안락을 꾀해야 하네.

이제 너는 이 무니를 보라.
괴로움의 바다를 이미 건넜네.
그러므로 마땅히 믿는 마음으로써
때를 놓치랴 빨리 베풀어 주라.
그래서 미리 피난처 마련하여
미래의 안락을 꾀해야 하네.

이렇게 이 비사문천왕은
그의 마음 깨우쳐 베풀게 하였다

때에 존자 정천은 곧 그 어머니를 위해 여러 가지로 설법하여 가르치고
기뻐하게 한 뒤에 발길을 돌려 떠나갔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